

상상력, 그리고 시간의 탄생 (진승우)

박인혁 작가는 시간에 대해 탐구하는 동시에 이 연구를 조형 언어로 구체화한다. 엄밀히 말하면 조형 언어를 통한 표현 자체가 시간의 탐험인 동시에 체험이기도 하다. 작가에게 시간이란 단순히 흐르는 추상적인 무엇이라기보다는 신체를 통해 구현되는 역동적인 힘, 운동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파리 1대학 조형 예술학과 재학 당시 작가가 선택한 주재료는 신문이었다. 르몽드 신문을 겹겹이 쌓아 풀로 붙여서 화석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 위에 얼굴을 그리기도 했다. 신문은 하루하루 세계의 기록이며 흔적이다. 그렇기에 신문을 쌓는 행위는 달아나는 시간을 고정해 포착하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쌓이는 시간만큼 작가의 시간도 같이 축적된다. 작가의 시간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며 따라서 독특한 시간성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자 빅토르 프랑클은 과거는 불멸의 것이라고 했지만 그 자체 불멸의 것은 아니다. 과거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달아나려는 과거를 붙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겹겹이 쌓이는 신문 속에 불멸에 대한 작가의 의지가 침전된다.

시간에 대한 연구는 얼굴 그림에서 더욱 심화된다. 얼굴 그림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내용이 명확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얼굴이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작가가 그린 얼굴은 관객이 그림과 밀고 당기는 놀이를 통해 관객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찾았을 때만 나타난다. 작가는 이 놀이를 위해 일종의 장치를 고안했다. 흰색과 검정을 섞어 만든 다소 음영진 색상과 조개 껍질 가루를 활용한 거친 붓질이 바로 그것이다. 얼굴은 바탕의 거침과 음영을 가로질러 관객에게 나타나며, 관객은 이를 통해 이중의 운동성을 체험할 수 있다. 꺼질꺼질한 터치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힘찬 움직임과 얼굴의 다가옴이라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며, 이 운동 속에서 작가의 정체성은 "있음"과 "없음" 사이 어딘가에서 부재의 방식으로 실존한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얼굴"처럼 작가의 얼굴은 "이방인"인 타인의 얼굴로만 "나타난다".

최근의 그림에서도 시간과의 놀이는 계속된다. 최근의 작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부드러운 색감과 이와 상반되는 거친 파스텔, 오일 파스텔 자국, 손짓의 흔적이다. 얼굴 그림과 마찬가지로 관객은 파스텔 색조 위로 서서히 드러나는 역동적인 힘과 숨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화폭 위에 여러 겹으로 층을 쌓았으며 작가가 제안하는 놀이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층이다. 관객은 캔버스 표면 뒤의 층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 시간은 단순히 그림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관객이 자신의 눈을 통해 그림, 각 층과 놀이를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얼굴 그림에서 얼굴의 드러남이 시간성을 만들어 낸다면, 최근의 작품에서는 관객이 놀이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성을 구성한다. 박인혁 작가에게 시간은 캔버스에 붙잡힌 자신의 신체적 노력임과 동시에 관객이 시선을 통해 창조하는 시간이다.

작가는 이 모든 것을 « 풍경 »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작가가 말하는 풍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 풍경, 눈에 보이는 자연이라기보다는 풍경을 눈 앞에 펼쳐지게 하는 어떤 힘이다.

어쩌면 초봄에 느껴지는 별거벗은 나무에서 잎, 꽃이 날 거라는 예감, 자그마한 들꽃에 깃들여 있는 생명력에 대한 감탄 같은 것은 자연의 힘에 대한 느낌일 것이다. 영감, 뮤즈(Muse)로서의 자연은 자연에 내재하는 정신적인 힘, 삶의 의지, 영혼의 힘이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자연의 생동하는 힘이자 정신적인 힘을 상상력이라고 불렀다. 시간을 붙잡으려는 노력, 기억을 응축하는 힘은 자연에서 비롯한 상상력이며, 작품이 상상하는 힘에서 나온 것일수록 상상력은 캔버스를 넘어 관객을 둘러싸게 된다. 작가의 상상력은 점점 더 커지는 불이 되어 이윽고 관객의 상상력으로 옮겨붙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관객은 자신의 시선과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작가가 의도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단지 자신이 느끼고 예감한 자연의 힘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작가는 자신의 숙명과 기꺼이 함께하는 것이다. 작가는 의도하지 않으므로 의도한다. 그는 자연을 받아들이며 자신도 자연이 된다. 그렇게 그의 풍경은 외적이며 동시에 내적인 자연으로서의 풍경이 된다.